

설 앞두고 요동치는 채소·과일 값

배추·무 전년비 각각 42%·51% ↑ ...사과·배도 올라 송미령 장관 “수입·재배 확대 통해 물량 확보 하겠다”

추축하던 채소·과일 가격이 설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올라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정보지 2501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배추(한포기)·무(1개) 소매 가격은 5천600원·3천330원으로 1년 전 대비 각각 41.5%·51.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오이(취청 10개·1만5천원)

20.0%, 토마토(1kg·6천70원) 15.6%, 배(신고 10개·4만5천원) 42.9%, 사과(부사 10개·3만5천원) 14.8% 등 대부분 채소와 과일 가격이 비싸졌다. 이 같은 채소·과일 가격 상승 요인은 산지 출하량 감소와 연초를 맞아 요식업소 납품용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년 전과 견졌을 때는 대파(1kg·2천800원), 풋고추(청양 100g·900원), 양파(1kg·2천160원)는 각각 47.5%·11.8%

%·8.5%가 저렴했다. 상승한 채소·과일 가격에 정부는 수입과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배추, 무 수입과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겨울철 들어 작황 부진에 배추와 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산지에

서 추가 상승 기대에 유통인과 김치업체의 저장 수요가 증가하는 등 유통 물량 조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은 이날 경북 안동시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을 찾아 보관 중인 배추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장 출하 상황을 직접 살폈다. 송 장관은 “가격 추가 상승 기대로 산지 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봄철 배추와 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지 유통인 등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출하하고 김치업체도 가공물량 과잉 저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태호기자·연합뉴스



전문건설 전남도회, 해남군에 취약계층 성금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7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해남군을 방문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과 회원사가 참석했다. 강성진 전남도회장은 전달식에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회원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소외된 계층을 꾸준히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만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설 선물 본 판매 개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7일 “오는 27일까지 2025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따뜻한 큐레이션”을 키워드로 맞춤형 상품제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되는 장기 불황과 내수 침체 등의 어려운 국내 정세를 감안해 상품 선택에 들어가는 고민과 수고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상품으로 엄선해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본 판매에서는 축산 및 청과, 수산 등 신선 식품을 믿고 선물할 수 있도록 우수 산지와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축산세트는 ‘함평천지한우 명가세트(75만원)’, ‘함평천지한우 정성3호세트(60만원)’, ‘고창한우 감사1호 세트(53만원)’, ‘고창한우 감사2호 세트(39만원)’를 선보인다. 수산세트는 ‘영광법성포굴비 건(90만원)’, ‘흑산도 홍어 GIFT(시세기준)’, ‘농산세트는 나주의 명물 ‘나주배 세트(18만원)’, ‘장흥 백하고 명품세트(30만원)’를 등이다. /정은솔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7일까지 2025년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12개월 사용시 기존비 510만원 ↑ ...휴직 중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7일 “2025년 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1년 기준 최대 2천3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연령 만8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0만원(2024년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준의 사후 지급 방식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이에 따라 12개월 사용시 기존 1천800만원에서 최대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이 증가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최대 2천900만원, 총 5천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와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도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3년까지 확대되며 최소 사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급여 지원은 최대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원씩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 부담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2024년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과 모성보호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2천782명으로 전년 대비 신청자와 지급액이 각각 6.5%, 9.5% 증가했으며 제도 활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확대된 지원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미래 세대 발전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주 경제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나서

광주상의·건설 전남도회, 공동모금회·적십자사 성금 기탁

광주지역 경제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에 광주상의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원 성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 위해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

지사를 통해 전달됐으며 사고 피해 복구와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경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먼저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건설업계를 대표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